

양계농장 부기의 기초개념

순서	내용
1	한국의 양계산업 어디까지 왔나?
2	어떤사람이 진짜 양계 경영자인가?
3	양계 CEO가 알고 있어야할 몇가지 경제지식 생산비와 경영비, 기회비용, 수확체감 현상, 규모의 경제, 이윤과 유통마진, 물가지수
4	경제를 알아야 성공한다
5	양계농장 부기의 기초개념



1. 부기의 의미

부기란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의 약자로서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거래내용, 즉 자산의 증감내용을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 무슨 기술까지 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이에 숙달하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므로 부기도 하나의 훌륭한 기술이 된다. 오늘날 대학의 회계학과나 경영학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회계사 또는 계리사가 되기 위한 지원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리라. 이러한 부기기술을 개발하고 이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분야를 회계학이라고 한다.



김 정 주

건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2. 부기의 종류

부기(簿記)라 하면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금전출납부와 같은 단식부기가 있고, 회계학의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가 있다. 단식부기는 농장관리에 수반되는 금전적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취합 정리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록 과정에서 거래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되는 것을 검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의 입출금 이외의 자산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소규모 농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복식부기보다는 단식부기를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는 마치 가까운 이웃집에 가는데 굳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복식부기와 대·차변

복식부기는 거래가 빈번한 대규모 농장에서 단식부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차변항목은 차변에, 대변 항목은 대변에 기록한다. 여기서 차(借)의 본래 의미는 ‘빌려 쓴다’는 뜻이고, 대(貸)는 ‘빌려 준다’는 뜻이지만 부기에서는 이러한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차변은 원편, 대변은 오른편을 의미할 뿐이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두 번 기록(복식)함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거래가 여러 번 일어나도 결국은 자동적으로 차변과 대변이 일치되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거래가 발생하면 두 번 기록한다하여 ‘복식부기’라고 하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하여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만일 거래의 기록과정에서 한쪽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되면 자연히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아서 어디엔가 오류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것을 복식부기의 ‘자검(自檢)능력’이라고 한다.

4. 거래

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몇 가지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거래’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러나 부기에서 말하는 거래는 반드시 재산상의 증감을 수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컨대 도둑을 맞는 일이나 화재를 당하는 일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지 않으나 부기에서는 거래가 된다. 왜냐하면 재산에 대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를 구두로 계약하는 일은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될 수 있으나 부기에서는 거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말로만 약속했을 뿐이지 재산상의 변동이 아직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자산·부채·자본

부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자산(資産)이라는 개념이다. 자산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재산(財産)과 비슷한 개념인데, 회계학에서는 재산이라는 말 대신



자산이라는 말을 쓴다.

자산은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투자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며 대차대조표의 차변(왼편)에 기록한다.(보고식일 경우 앞부분에 기록) 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축사, 기계설비, 운반용 차량, 종계 등과 같은 고정자산이 있고, 현금, 사료, 외상 매출금 등과 같은 유동자산이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구분은 움직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고 일회용인 경우는 유동자산, 생산과정에 두고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정자산이다.

한편, 대차대조표의 대변(오른편)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는데 부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을 의미하고 자본은 사업을 위해서 경영주가 은행이나 채권자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주 스스로 조달한 순수한 사업자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부채는 '남의 것' 이요, 자본은 '내 것'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투자된 사업자금(자본)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즉, 부채는 남(타인)으로부터 조달되었고 자본은 자기 자신(또는 우리)으로부터 조달되어 투자자본에 대한 청구권의 소재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청구권을 갖고 자본에 대해서는 농장소유주가 청구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결국, 대차대조표의 차변(왼편)은 일정시점에서의 투자 자본에 대한 운용형태를, 대변(오른편)은 투자 자본에 대한 조달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좌.우측 합계는 항상 같도록 되어 있다.

즉,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 = 부채 + 자본'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만 보면 그 농장의 재산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6. 대차대조표

부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나 농장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데 있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를 나타내는 자료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이 또한 일반에게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이나 농장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로서 차변(왼편)에는 자산을, 대변(오른편)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한다.(보고식일 경우 자산, 부채, 자본의 순으로 기입)

표1은 양계 농장의 가상적인 대차대조표이다. 물론 실제 대차대조표는 이 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차대조표의 차변(왼편)을 보면 자산합계가 12억 3천 4백만원으로 나타나 이 농장의 총 재산규모를 말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10억원은 토지, 저온창고 등 고정자산이고 나머지는 사료재고, 외상매출

표1. 중주 양계농장 대차대조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차 변		대 변	
자 산		부 채	(800)
(고정 자산)	(1,000)	유 동 부 채	300
토 지	400	고 정 부 채	500
축 사	300	자 본	400
계란 선별기	100	당기순이익	34
차량운반구	50		
기 타	50		
(유동 자산)	(234)		
현 금	50		
사료(재고)	50		
외상매출금	50		
기 타	84		
자산 합계	1,234	자본 및 부채	1,234

금, 현금, 기타 유동자산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차대조표의 대변(오른편)을 보면 외부로부터 빌려온 자금(부채)이 8억원, 농장주가 자력으로 조달한 자금(자본)이 4억원임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빚을 8억원 얻고 자기자금 4억원으로 1년 동안 농장을 운영한 결과 3천 4백만원의 이익이 생겼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1년간의 농장경영성과로 3천4백만원은 경영주 몫(자본)이 증가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자본금 4억원은 기초(期初=시작할 때의)자본이 되고 4억원과 3천 4백만원을 합한 4억 3천 4백만원은 기말(期末=끝날 때의)자본이 되며, 다음 회계기간(2009년 3월 1일-2010년 2월 28일)의 기초(期初)자본이 된다. 결국 기말(期末)자본(4억 3천 4백만원)에서 기초(期初)자본(4억원)을 빼면 당기순이익(3천 4백만원)이 계산된다. 이렇게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것을 '재산법'이라고 한다.

7. 손익계산서

그런데 대차대조표에서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규모는 알 수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회계기간 동안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얼마나 이익 또는 손해가 났는가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이다. 그러므로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용을 보여주는 일람표이다.

이때도 복식부기의 체계를 따르면 대변에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록하고 차변에는 같은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실을 기록한다. 이때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2. 총주양계농장 손익계산서

(2007.3.1-2008.2.28)

(단위 : 백만원)

차 변		대 변	
(비 용)		(수 익)	
사 료 비	180	계란 판매대전	300
고용인건비	98	기 타 수 익	50
기 타 경 비	38		
당기순이익	34		
비용합계	350		350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 식을 정리하면 ‘총비용 + 당기순이익 = 총수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차변(왼편)에 총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대변(오른편)에 총수익을 기록한 것이 손익계산서 체계이다.

이렇게 손익계산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손익법’이라고 하며 앞의 대차대조표에서 계산된 것과 당연히 같아야 한다. 다만, 앞의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총액만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 대차대조표는 공개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남이 알아서는 아니 될 수익이나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의 당기순이익이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나타나 있다. 이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디엔가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복식부기는 스스로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계**